

수소 · UAM · 우주산업 관련 주간정책 동향

□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중앙	- (해당 없음)
	지방	□ 남양주시, 수소에너지 자족도시 조성 본격화(2024-12-12) - 남양주시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고, 이를 기반으로 한 수소 공급망 구축 계획을 발표. 해당 프로젝트는 2028년까지 왕숙2지구에서 유기성 폐자원 처리 시설을 포함한 수소 생산 인프라를 조성 - 수소 출하센터를 통해 지역 경제권을 활성화하고, 시민 체감형 수소 활용 사업도 추진. 이는 남양주시 탄소중립 및 수소 경제 선도를 목표로 함 - 부시장은 지역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과 협력할 것을 강조
		□ 보령시, 내년 수소연료전지차 64대에 보조금 지원(2024-12-12) - 충남 보령시는 2025년까지 500대 이상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목표로 수소 승용차 및 버스 구매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. 특히 저소득층, 다자녀 가정, 생애 첫 차량 구매자들에게 우선 배정 - 수소차는 무공해 차량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, 현대차 '넥쏘' 등 성능 향상된 모델이 추가되어 수요가 증가할 전망 - 수소차 구매는 보령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며, 보령시는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복지 확대를 기대
		□ 이천~잠실에 경기도 최초 광역수소버스 운행(2024-12-12) - 이천시와 서울 잠실 간 G2110 광역버스 노선에 경기도 최초로 5대의 수소버스 운행 시작. 수소버스는 무공해 차량으로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이 장점 - 기존 CNG 버스를 점진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할 예정이며, 충전은 이천의 대흥액화수소충전소에서 이뤄짐 - 김경희 시장은 이번 전환이 모빌리티 분야에서 수소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 언급
		□ 경남도, 2026년 국내 첫 수소 전동자전거 상용화 추진(2024-12-12) - 경남도는 수소 전동자전거 '수소 카고바이크' 상용화에 본격 착수. 대량 화물 운반 가능 및 안전 기준 마련으로 신규 모빌리티 시장 개척 기대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지방	-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실증 테스트와 연료전지 개발 등이 진행 중이며, 2025년 성능 평가를 거쳐 2026년 도입 예정 -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 효과 1005억 원과 고용 창출 617명을 기대하며,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 목표.
		□ 강원특별자치도, 수소기업 간담회 개최(2024-12-12) - 강원특별자치도는 수소산업 발전 방향 및 기업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동해 시에서 수소기업 간담회를 개최. 수소MC 기업과 함께 다양한 의견 교류 - 간담회에서는 액화수소 산업 특구 지정 및 수소 저장·운송 클러스터 등 지역 핵심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을 공유. 일반기업의 수소 전문기업 전환 촉진 - 강원도는 동해·삼척 중심으로 수소산업 육성을 지속하며, 논의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
		□ 창원시의회 액화수소 행정특위 중간보고 “처음부터 불합리한 구조” (2024-12-12) -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와 지방비 사용의 불법성을 지적하며, 사업 실패 가능성을 경고 - 초기 사업 기획부터 리스크 관리 부족, 부적절한 투자심사와 지방재정 심사 허위 보고 등을 주요 문제로 삼음 - 시의원들은 사업 손실 방지를 위한 개선책과 투명한 관리 체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활동 기한을 내년 3월로 연장
		□ 포항시-에어퍼스트, 수소도시 조성 성공 추진 위한 업무협약(2024-12-13) - 포항시와 에어퍼스트는 수소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. 안정적 수소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함 - 총 400억 원을 투입해 수소 충전소 및 수소 배관 건설, 통합안전운영센터와 수소도시 정보관 등 수소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 - 포항시장은 협약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.
		□ 구미, 전국 최초 AI데이터센터와 수소발전소 결합한 2조 원 규모 첨단 디지털산업 투자(2024-12-13) - 구미시는 AI데이터센터와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결합한 첨단 복합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. 이는 데이터센터 분산정책을 지원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함 - 프로젝트는 구미국가5산단에서 2028년까지 진행되며, 총 2조 원 규모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균형 발전에 기여할 전망 -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지원과 투자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지방	□ 경북도, AI데이터센터+수소연료전지발전, 2조 원 투자유치(2024-12-13) - 경상북도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내 100MW AI데이터센터와 60MW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2028년까지 구축하는 투자 협약 체결 -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디지털 에너지 전환 계획의 핵심으로,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 기대 - 경상북도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전력 자립률을 바탕으로 국가 디지털 균형 발전에 기여할 방침
		□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 조성 "2025년 하반기 승인"(2024-12-13) - 울진군은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며 청정수소 생산 및 공급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설정 - 2025년 하반기까지 행정 절차 완료 후 본격적인 산단 조성 계획.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및 문화 시설 확충도 병행 예정 - 울진군은 청정 에너지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법적 기반 마련과 사업 추진 전략에 주력
		□ 제주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도민설명회 연다(2024-12-17) -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소경제 전환을 목표로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확대 및 수소 저장·활용 인프라 구축 방안을 설명하는 도민 설명회를 개최 - 전문가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도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 강화 - 제주형 수소경제의 비전과 단계별 추진 전략 제시로 수소경제 선도 지역 도약 목표
UAM	중앙	□ 국토부, 고훈서 '에어택시' UAM 뜬다...美 조비사 첫 투입(2024-12-13) - 국토교통부가 UAM 안전성 검증을 위해 고훈에서 K-UAM 그랜드챌린지 시연을 개최.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의 S-4 기체 활용 - SKT 컨소시엄과 함께 운용 시스템과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통합 검증하며, 상용화 가능성을 점검 - 국토부는 글로벌 수준의 UAM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과 협력해 상용화 준비를 진행.
	지방	□ '드론택시 타고 제주관광' 점점 현실로...UAM 상용화 청신호(2024-12-15) - 제주도는 고훈에서 열린 K-UAM 그랜드챌린지 행사에서 UAM 기체 운용 시스템과 안전성을 확인하며, 제주형 관광 UAM 실증에 나섬 - K-UAM 드림팀 컨소시엄이 주관한 실증에서 세계적인 전기 수직이착륙 항공기 제조사의 S-4 기체가 활용됨 - 제주도는 UAM 상용화를 위해 버티포트 건설 계획을 수립하며, 관광형 UAM을 통한 산업 선도와 글로벌 수출 모델 개발 목표.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우주	중앙	□ 우주항공청, 2025년 예산 9649억원 27% 증액 확정(2024-12-12) - 우주항공청의 2025년도 예산이 9649억원으로 확정되어 올해 대비 27% 증액된 규모로 최종 결정. 이는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과 국가 주력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되는 상황 - 주요 예산 배정 내역을 보면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및 차세대발사체 개발 등 우주수송 역량 확대에 3106억원, 첨단위성 개발에 2123억원, 달 착륙선 개발과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참여에 543억원 등으로 구성된 편성 -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거점 인프라 확보에 1153억원, 첨단항공산업 핵심기술 및 부품 자립화 사업에 40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,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지속 추진할 방침
	지방	□ 경기상상캠퍼스, '푸룻푸룻프렌즈 과일우주여행' 체험전시 개최(2024-12-12) -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가 12월 19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교육형 아트체험 '푸룻푸룻프렌즈 과일우주여행' 체험전시를 진행하는 행사 개최. 겨울방학을 맞아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기획된 특별 프로그램의 일환 - 전시는 우주과일 만들기, 소리로 키워줘!, 숨쉬는 토마토, 우주 여행, 외계 식물원, 베리베리 은하수, 꿀 거미, 무중력 과수원 등 총 8개의 체험 전시존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상호작용형 체험을 제공하는 구성 - 관람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, 체험료는 2000원으로 지지씨멤버스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또는 현장발권으로 이용 가능. 영아는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미취학아동은 보호자 동반이 필수인 조건
	지방	□ 아산시-한국항공우주연구원, 장영실과학관에 중력환경 연구시험실 개소(2024-12-12) - 아산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장영실과학관에 무중력환경 연구시험실을 개소하며 차세대발사체 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연구 거점을 확보. 그린타워의 무중력낙하실험시설과 연계한 연구·사무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 - 지난 6월 체결한 무중력환경 시험시설 업무협약을 바탕으로, 아산그린타워에서 차세대발사체 재점화 기술 등의 실험을 지원하며, 이를 연구하고 논의할 사무공간으로 장영실과학관 3층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성과 도출 - 120미터 높이에서의 자유 낙하 실험을 통해 차세대발사체 부품 개발에 활용되는 시설로, 연구원들의 실험데이터 분석과 연구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우주항공기술 발전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
우주	지방	□ 경남도, 우주항공청 개청 캠페인으로 소통 역량 인정받아 수상(2024-12-12) - 경남도가 우주항공청 개청 캠페인으로 '공공브랜드대상'과 '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'에서 각각 수상하며 소통 역량을 인정받는 성과 달성. 이는 두 시상식 모두에서 최초로 수상하는 쾌거로 기록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- 경남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'글로벌 우주항공 수도, 경상남도!' 캠페인을 통해 우주항공청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1600만 회의 역대 최대 광고 노출 기록 달성 - 캠페인은 시기별로 이미지, 영상, 캐릭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전방위적 홍보를 추진했으며,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국민 참여형 이벤트와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성과
		□ 고양특례시, 바이오-항공우주 기반 경제자유구역 2025년 지정 추진(2024-12-13) - 고양시가 장항·대화·송포동 일대 약 17.66km² 규모의 바이오·정밀 의료, 스마트 모빌리티와 항공우주산업, 전시컨벤션, 푸드테크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내년 목표로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 - 시장 취임 후 해외 기업 등으로부터 약 6조5000억 원의 투자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, 영국 킹스칼리지, 버밍엄대와 국제 캠퍼스 공동 설립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교육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 - GTX-A 킨텍스역과 대곡역 개통으로 서울역까지 통행시간이 50분에서 16분으로 단축되는 등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으며, 서해선 소사~일산 구간 개통, 신분당선 일산 연장 등 광역철도망 확충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
		□ 고흥군 우주발사체산업 발전전략 컨퍼런스 성공적 개최(2024-12-13) - 고흥군이 여수에서 국내 산·학·연·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발사체산업 발전 전략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. 고흥의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 - 컨퍼런스는 정책, 산업, 기업 세션으로 구성되어 항공우주 정책 방향과 클러스터 추진 상황, 인력 양성과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,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20여 개 기업의 기술개발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진행 -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이달 말 조사 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, 민간 발사장 및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우주발사체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
		□ 경남도의회, 우주항공복합도시·남해안발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(2024-12-13) - 경남도의회가 제4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12조 4730억 원 규모의 경남도 예산안과 6조 8037억 원의 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고,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법과 남해안발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 - 도의회는 올해 1월부터 정례회 2회, 임시회 8회 등 124일간의 회기를 통해 각종 안건을 처리했으며,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 성과 - 부산·경남 행정통합에 적극 대응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되어 내년 부터 1년간 행정통합 관련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우주	지방	□ 경남도정 만족도 최고치, 우주항공청 개청이 최고 성과로 평가(2024-12-17) - 경남도가 실시한 도민 인식 조사에서 66.8%가 도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최근 5년간 최고 성적을 기록. 도민의 64.6%가 경남에서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결과 - 분야별 주요 성과 중 경제·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청 경남 개청(58.5%)이 최고 성과로 꼽혔으며, 역대 최대 고용률 달성 및 전국 일자리 대상 종합대상 수상(9.8%), 수출액 43억 달러 달성(7.2%)이 뒤를 이은 순위 - 2025년 경상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산업·경제·일자리(61.0%), 복지·의료·교육(53.6%), 교통·건설·안전(22.4%) 순으로 나타났으며, 1027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%.

□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국가기관	□ 에너지연, 수소 생산용 바이오전해전지 대형화 가능 기술(2024-12-12) -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바이오 전해전지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선하여 대형화 공정에서도 효율 유지, 생산성 증대 및 전력 손실 문제 해결 - 새로운 셀 구조는 파일럿 규모 실험에서도 성능 검증을 받았으며, 상용화 시 수소 생산 공정의 효율성 향상 - 연구진은 기술 개발이 국내 유기성 폐자원 활용과 청정 에너지 생산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.
	지방기관	- (해당 없음)
UAM	국가기관	- (해당 없음)
	지방기관	- (해당 없음)
우주	국가기관	□ 우주항공청 신청사 입지 결정 임박, 연내 확정 예정(2024-12-13) - 우주항공청이 17일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현재 추천된 10곳 중 3곳을 후보지로 압축하고, 부지가격과 규제 등을 고려해 연내 최종 입지를 확정할 계획을 발표 - 도시계획전문가와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가 유력 후보지 현장 확인을 마친 상태이며, 지역사회에서는 시청이 위치한 '용현면 용현행정타운'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우주	국가기관	선정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 - 신청사 입지가 확정되면 2026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,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2030년 하반기에는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
		□ KAI, 진주 가산산업단지에 회전익 비행센터 준공(2024-12-16) -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이 회전익과 미래 비행체 연구 개발의 핵심이 될 회전익 비행센터를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산업단지에 준공. 대지 면적 약 13만 5197㎡ 규모로 연구·시험 분야 120여명이 배치될 예정 - 회전익비행센터는 지상 5층 건물과 헬기 격납고, 700m 활주로로 구성되어 헬기를 동시 5대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며, 연구개발과 신규사업의 확대에 따른 시험비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 - KAI는 이 센터를 통해 미래항공기체(AAV)와 고속중형기동헬기, 유무인 복합 체계 등 미래 비행체의 연구·개발, 실증·비행시험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대한민국 미래 항공우주산업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.
	지방기관	□ 경남TP, 우주·항공 수출 활성화 워크숍 성공적 개최(2024-12-12) - 경상남도과 경남테크노파크가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'2024 우주·항공 수출 활성화 워크숍'을 성공적으로 개최. 항공 수출지원 활동 성과와 내년도 마케팅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 - 존리 임무본부장은 우주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발표하며 대한민국 우주 발전을 위한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. 경남TP는 경남 항공산업 현황과 2024년도 수출 지원 활동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 - 경남TP는 2025 파리에어쇼 등 6차례 이상의 우주항공 분야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, '경남우주항공클러스터협의체' 조기 출범을 통해 경남 우주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.
		□ 전남테크노파크, 첨단소재·조선해양·우주항공 기술 개발 지원(2024-12-17) - 전남테크노파크가 순천·여수·광양·목포·나주시와 장성·고흥·영암군 등 8개 시군에 걸쳐 9개 특화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 - 소재기술지원본부와 융합기술지원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, 신금속산업센터, 화학산업센터, 세라믹산업센터, 레이저산업센터, 철강산업센터 등을 통해 첨단 소재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체계 - 우주항공산업센터, 조선산업센터, 에너지산업센터, 스마트실증산업센터 등을 통해 미래산업 중심의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며,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정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□ 부산테크노파크, 항공·우주분야 취업 연계 굿잡버스 운영(2024-12-17) - 부산테크노파크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우수 기업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항공·우주분야 굿잡버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. 20명의 취업준비생이 참가해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등 기업 방문 - 참가자들은 기업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채용 담당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 기회를 가졌으며, 지역 항공·우주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성과 - 부산테크노파크는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굿잡버스를 다른 산업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며, 지역 우수 기업과 청년을 연결해 지역 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 □ 사천 우주항공청 본청사 입지 3곳으로 압축(2024-12-17) - 우주항공청입지선정위원회가 서울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본청사 후보지 6곳을 3곳으로 압축하는 결정. 후보지 모두 사천 지역 내에 위치하며 부동산 투기 우려로 구체적 위치는 비공개 - 신청사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, 내년 2월 행정안전부에 청사 수급·관리 계획을 제출하고 4월 승인을 받을 예정. 사천시는 용현면 일대 560만㎡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진행 중 - 사천시 관계자는 청사 위치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발전과 세계적 경쟁력을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, 융복합 우주항공청사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입장 □ 인천테크노파크, 항공우주산업 씨앗 성공적 개최(2024-12-18) - 인천테크노파크가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'항공우주산업 씨앗'을 개최하여 인천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신규 선도기업 지정패를 수여하는 네트워크 강화의 장을 마련 - 금세진엔지니어링스페이스, 비엔알월드, 베텔원표면처리연구센터 등 7개 기업이 새로운 '항공 선도기업'으로 선정되어 향후 항공산업 지원사업 공모가점과 산학연 협력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받을 예정 - 행사는 인천시 항공산업 현황 소개, 항공·드론·UAM 관련 기업 우수사례 발표, 2025년 주요 지원사업 계획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되어 인천의 항공우주산업 육성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활용

□ 민간 및 기타(포럼, 세미나, 토론회 등) 동향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민간기업	- (해당 없음)
	대학교	□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, 국내 첫 액화수소운반선 개발 착수(2024-12-16) -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는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운반선 설계 및 건조 프로젝트를 시작하며, 2028년까지 해상 실증 완료 예정 - 이 프로젝트는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일환으로, 수소 밸류체인 구축 및 관련 산업 기술력 강화 목표 - 초저온 액화수소 저장 기술 개발과 상용화는 국내 조선 및 기자재 산업의 신시장 진출 기반 마련
수소	해외	- (해당 없음)
	기타	□ 유리창/ 음식물쓰레기에서 수소자동차 연료로(2024-12-16) -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확산 중. 충주는 이를 활용한 국내 최초 수소충전소 설립 - 이 기술은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수소차 연료 공급 문제를 완화하며 환경 친화적 대안으로 주목받음 - 여러 지자체에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수소 생산 기지 구축을 추진 중으로,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□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 "포스코수소환원제철은 생존에 선도적 대책"(2024-12-17) -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사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선도적 대응책임을 강조 - 탄소제로 시스템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의 필요성이 대두되며, 정부 지원 및 민간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 가속화 필요 - 대구지방환경청은 관련 인허가 지원을 통해 수소환원제철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방침
UAM	민간기업	- (해당 없음)
	대학교	- (해당 없음)
	해외	- (해당 없음)
	기타	- (해당 없음)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우주	민간기업	□ 라이프시맨틱스, 스피어코리아 합병으로 글로벌 우주발사체 시장 진출(2024-12-12) - 라이프시맨틱스가 글로벌 민간 우주항공사의 1차 벤더인 스피어코리아와의 합병을 통해 우주발사체 산업 진출을 본격화하는 계획. 합병비율 1대 164.6090535로 진행되며, 라이프시맨틱스가 존속하고 스피어코리아는 소멸하는 구조로 결정 - 스피어코리아는 로켓 발사체의 핵심 부품인 특수합금을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공급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,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이 전년 대비 437% 성장한 650억원을 달성한 성과를 기록한 상황 - 합병 완료 후 우주항공 특수합금 소재 및 원자재의 보관, 가공, 테스트 관련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여 사업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, 내년 1분기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과 우주항공 신사업 매출이 더해져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전망
		□ 이노스페이스, 한빛-나노 위성발사체 발사 일정 7월로 연기(2024-12-13) -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내년 3월 예정이었던 위성 발사체 '한빛-나노(HANBIT-Nano)' 발사를 7월로 조정한다고 발표. 전기펌프 구성 부품의 납품 지연과 신규 종합시험장 구축 지연이 주요 원인 - 발사 일정 변경은 발사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며, 브라질 발사장에서 사용 가능한 가장 빠른 일정인 7월을 새로운 발사 시점으로 선택하게 된 배경을 설명 - 회사는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발사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, 고객과 주주,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일정 조정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입장.
	대학교	- (해당 없음)
	해외	□ 美 차세대 기술 기업들 주가 급등, 양자·드론·우주 분야 주목(2024-12-17) - 미국의 차세대 기술 분야 소형주들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미·중 기술 패권 전쟁의 영향으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기록.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대감이 한 요인 - 양자컴퓨팅 관련 기업 퀀텀컴퓨팅이 65.25% 폭등했으며, 리게티컴퓨팅, 아이온큐도 각각 17.74%, 23.59% 상승. 구글의 양자 칩 '윌로우' 개발 소식에 따른 양자컴퓨터 상용화 기대감이 영향 - 드론 기업 레드캣홀딩스는 26.97% 급등했으며, 우주 관련 스타트업 인튜이티브머신스와 로켓랩도 각각 10.65%, 6.06% 상승.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과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.
	기타	□ 탄핵 정국으로 양자·우주 국가전략기술 최고위 회의 불확실성 증가(2024-12-12) -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주일째 이어지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양자전략위원회와 국가우주위원회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최고위 회의의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기되는 상황이 발생. 정책 방향 결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- 양자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200여명의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으며,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'안개 속' 상태. 양자종합계획 수립과 부처 간 업무 조정 등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 - 국가우주위원회도 이달 말 예정된 제3회 회의가 연기되면서, 2032년 발사 예정인 한국 첫 달 착륙선 개발 계획 등 주요 우주 정책의 논의가 지연.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일정 변경 등 국제 협력 관련 대응도 불확실해지는 상황

-끝-